

## 제8절 민선6기 브랜드 시책 추진

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 「숲속의 전남」 만들기

## 제8절 민선 6기 브랜드 시책

### 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 1-1.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의 섬 개발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섬 개발정책이다. 과거 섬 개발은 섬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물양장, 연륙연도교, 도로 등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기관 주도로 진행되어 주민들은 소외되었다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섬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다. 즉 소규모사업 위주로 추진되며,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운영하는 등 주민 행복을 위한 주민 주도의 사업이다.

최근 섬의 수려한 자연풍광, 식생, 역사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바쁜 일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은 휴식과 힐링을 위해 섬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전남의 섬 방문객 수는 최근 5년간 2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섬 주민을 제외한 순수 여행자 수는 40% 증가하였다. 이를 통계로 추산할 경우 섬 여행자 수는 연 평균 1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2-322> 전라남도 섬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956	6,785	7,450	7,581	8,432
여행자	4,343	4,399	5,053	5,173	6,091
섬주민	2,613	2,386	2,397	2,408	2,341

이러한 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명소 발굴을 위하여 「가고 싶은 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개의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여 총 2,6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2015년에는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6개 섬을 선정, 주민역량 강화와 병행하여 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확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별써부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6개 섬 방문객은 2014년 269,703명에서 2015년 570,256명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앞으로 6개 섬에 숙박, 음식, 걷는 길 등 최소한의 관광기반 시설이 조성된 이후에는 섬별로 오픈행사 등의 이벤트도 개최하여 섬을 찾는 여행자에게 휴식과 함께 많은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항만과장 최정희, 섬개발팀장 이상심, 담당자 손영곤

## 1-2. 섬별(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015년 선정된 6개의 「가고 싶은 섬」들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 섬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조사TF팀이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를 방문하여 어촌문화, 경관, 자연환경, 식생,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섬별 자원을 조사하였다.

조사단과 함께 섬 주민들은 숨겨진 마을의 보물을 찾기 위해 참여하였으며, 발견된 섬별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섬 가꾸기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

‘낭만’ 낭도. 걷는 섬길, 모래해변, 갯벌, 낙지, 콩밭, 낭도막걸리, 폐교, 사도, 공룡발자국, 봉수대가 있던 자리, 소가 쟁기질하는 모습, 별무리 등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낭도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폐교를 숙소 및 식당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기업을 통해 운영한다. 장사금 해변에는 ‘뜻밖의 도서관’을 조성하고, 규포 마을엔 어가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분홍 치마’ 연흥도. 섬 속의 미술관, 골목 아트디자인, 황토길, 모래해변, 작은 섬, 섬 둘레길, 공공미술, 주민 열정, 다시마, 미역, 몽돌해변, 선박, 젊은이들, 낮은 표고 등이 연흥도의 대표 키워드이다. 가족, 연인이 함께하는 미술 섬 여행을 위하여 연흥도 국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섬 전체가 조형 미술관으로 조성되며, 마을 도선도 움직이는 미술관 콘셉트로 신조할 계획이다.

‘걷는 섬’ 가우도. 가우도의 핵심 키워드는 나무다리, 청년카페, 작은마을, 생태공원, 호수를 닮은 강진만, 출렁다리, 짙레꽃, 가우도밥상, 바지락초무침, 맑은 샘, 후박나무, 당숲, 청자 전망대, 산책로, 수국, 향기, 마을기업, 주민공동체 등이다. 현재 마을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우나루’ 청년카페를 오픈하였으며, 부녀회에서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가우도는 마을기업을 통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의 ‘마을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랑무궁화’ 소안도. 미라리 어부림, 넓은 섬길, 대봉산 둘레길, 가학산 전경, 물치기미해변, 독립운동가, 태극기, 노랑무궁화, 전복, 다시마, 마라리분교, 몽돌해변, 야생화, 습지, 잘피군락지 등의 핵심 키워드가 소안도의 대표 자원으로 발견되었다. 둘레길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노랑무궁화가 피는 섬마을, 파도소리가 들리는 소안도 숲길 등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미라리펜션, 전복밥상, 노랑무궁화 전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술 향기’ 관매도. 국내 최대 해변술 숲, 장안평 습지, 하늘다리 가는 길, 꿩돌, 야생화, 유채꽃무리, 하얀 백사장, 관호마을 돌담, 우실, 각시원추리, 쪽막걸리, 건정, 걷는 길, 산이스라지, 각시붓꽃 등이 관매도를 대표하는 자원이다. 주민들의 섬살이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간판을 설치하고, 관매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다. 해변카페, 정자를 활용한 무인카페, 섬마을식당을 위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전통 바람막이 돌담인 우실을 복원할 계획이다.

‘노뚝돌’ 반월·박지도. 천사의 다리, 갯벌, 낙지, 갯골, 노뚝돌, 당숲, 숲의 정령, 시간이 멈추다. 노뚝돌, 슬픈 사랑이야기, 암자터, 해안 둘레길, 고즈넉함, 깊은 산속 옹달샘, 반월양과 박지군, 호젓함, 꽃이 있는 마을, 원안의 논, 10샘 등은 반월·박지도만의 숨겨진 이야기이다. 사랑을 테마로 한 탐방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는 해안 둘레길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단체숙박을 위한 폐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

해양항만과장 최정희, 섬개발팀장 이상심, 담당자 손영곤

## 2. 「숲속의 전남」 만들기

### 2-1. 추진배경과 사업내용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전남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고 소득경관 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로 거대한 공원같은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이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기간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5,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나무심기 3만 1천ha, 가로수 1,180km, 학교숲, 나눔숲 280개소, 마을숲 250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산림가치는 2013년말 14조원에서 30조원으로, 임업인 소득은 7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관광객은 2013년 178만명에서 35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경관숲’과 ‘소득숲’, ‘숲의 보전과 활용’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경관숲’은 생활주변의 자투리땅과 도로·철도역 주변, 학교와 관공서, 섬과 관광지, 도시의 공원, 가로수, 하천변 등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를 심어 지역경관을 창출하게 된다.

‘소득숲’은 야산, 한계농지, 간척지, 공유지, 기타 숲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건축용·버섯용 목재와 기능성 식·음료, 약재 등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나무를 심어 단지화하고, 고령화·건강지향의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견과류와 밀원수 등을 식재하여 도민의 소득을 높여가는 것이다.

‘숲의 보전과 활용’은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숲관리를 통해 역사와 전설이 있는 보호수와 노목 등을 발굴·정비하고, 기존에 잘 가꾸진 숲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는 등 숲을 녹색산업화 하는데 있다.

<표2-323> 「숲속의 전남」 만들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사업비	1단계(2015~2018)					2단계 (2019~ 2024)
		소 계	2015	2016	2017	2018	
계	5,300	2,040	440	498	550	552	3,260
국 비	2,605	1,032	259	253	260	260	1,573
도 비	740	272	30	67	87	88	468
시·군비	1,845	692	140	167	192	193	1,153
민간(자부담)	110	44	11	11	11	11	66

<표2-324>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요사업 내용

구 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량
재원	실행 주체			
계		11종/ 31천ha/ 530개소/ 1,180km		
국고 보조	소 계		8종	30,450ha
	시·군	도시숲	자투리땅, 공단, 하천, 쓰레기 매립지	450ha
		섬마을기	섬지역 주거지역, 뱃길 가시권	1,000ha
		방풍림	태풍 등 농경지 자연재해 예방조림	4,000ha
		학교숲	초·중·고, 특수학교	170개소
		나눔숲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거주시설	110개소
		가로수	주요 도로변	1,180km
	시·군 산주	경제숲	목재,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15,000ha
		생산숲	밀원수, 견과류 등 특용 단기소득 자원조림	10,000ha
	자체 사업	주민 단체	마을숲	숲이 부족한 마을, 약취 등 유발 마을
관광숲			관광지, 강변·해안 도로, F1경주장 주변 보호수, 공원 등 조성·관리	500ha
민간	기업 단체	기업숲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공유지	50ha

추진부

산림산업과장 윤병선, 산림경영팀장 김재광, 담당자 문미란

## 2-2. 추진기반과 지속성장의 기틀 마련

### 가. 민간협의회 · (사)숲속의 전남 구성·운영

그동안의 나무심기는 도나 시군 주도하에 나무를 심어 왔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이러한 과거의 관 주도 나무심기에서 벗어나 주민과 민간단체의 역량을 모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에 경관·조경·산림·환경·관광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252명)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홍보,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주변의 숲 확대와 보호활동, 숲 문화운동, 그리고 북한 산림협력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사)숲속의 전남을 설립(2015. 7. 15.)했다. (사)숲속의 전남은 순수 민간단체로서 숲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도민의 역량을 모으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나무심기 지원조례」 제정과 숲 돌보미 운영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잘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조례」를 제정(2015. 8. 5.)했다.

또한 숲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인력과 숲 관리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숲 돌보미는 생활주변에 조성된 숲을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2015년 247개 단체 8,551명이 참여했다.

### 다. 공모를 통한 주민참여 숲 조성

주민이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새마을회, 부녀자회, 청년회, 노인회, 마을 이장단 등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처음으로 숲 조성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결과 마을과 지역에 적합한



주민·단체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며, 순천 강청수변 공원숲, 광양 벽면녹화, 신안 도초 지복숲, 여수 예울마루숲 등 민간단체가 39개소의 숲을 조성했다.

#### 라. 분위기 확산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숲속의 전남」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동영상 제작, 아름다운 숲 이야기 책자(1,000부)제작, 리후렛 제작·배부(1만부), 도로변 홍보 입간판 23개소, 언론 홍보 6,672회, 협의회·토론회 75회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 체계를 확립, 시군과 개인·단체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확보했다. 2015년에는 순천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산림산업과장 윤병선, 산림경영팀장 김재광, 담당자 문미란

### 2-3. 꽃과 나무심기 추진

2015년에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기반 및 지속적인 성장기틀 마련과 더불어 나무심기 1천ha, 가로수 116km, 학교숲 17개소, 마을숲 2개소, 나눔숲 10개소를 조성했다.

여기에는 두고 두고 찾고 싶고 가고 싶은 숲이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진도 임희면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오드리햅번 어린이 재단이 ‘세월호 추모의 숲’을 조성했으며, 경북 구미 동락공원과 목포 삼학도 공원에는 동서 화합을 위한 ‘도민의 숲’이 조성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2015년 한해 당초 계획했던

1,000만그루 보다 많은 1,009만그루의 나무와 345만그루의 꽃을 지역 곳곳에 심을 수 있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전국적인 관심과 좋은 평가도 받았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 우수사례, 제1회 친환경별채 전국 우수상 등 6개 분야의 상을 휩쓸었다.

추진부

산림산업과장 윤병선, 산림경영팀장 김재광, 담당자 문미란